

# 2015 강원도교육청-돛토리현교육위원회 국제교육교류 학생교류단 방일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 I. 출장개요

### ○ 목적

- 강원도교육청-돛토리현 교육위원회간 국제교육 교류 20주년 기념  
긴키고등학교 종합문화제 강원도학생예술단 공연 참가 및 도-현간  
학생 토론회를 통한 상호간 의견 교환
- 한일 학생 공동수업운영, 방과후 체험학습, 홈스테이를 통한 학생  
상호간 교육교류 협력 강화
- 강원도 학생예술단 공연을 통한 한국전통음악 소개 및 문화교류 운영

○ 기간 : 2015. 11. 13.(금) ~ 17.(화)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일본 돛토리현교육위원회 및 산하 교육기관,  
각급 학교

### ○ 여행자 인적사항

번호	소속	직위	성명	비 고
1	0 0 중학교	교장	최 0 0	남
2	0 0 고등학교	인솔교사	신 0 0	남
3	0 0 초등학교	인솔교사	전 0 0	남
4	0 0 고등학교	통역교사	김 0 0	남
5	0 0 고등학교	통역교사	김 0 0	여
6	교육안전과	장학사	권 0 0	남
7	0 0여자고등학교	학생	이 0 0 외 25명	여

## II. 출장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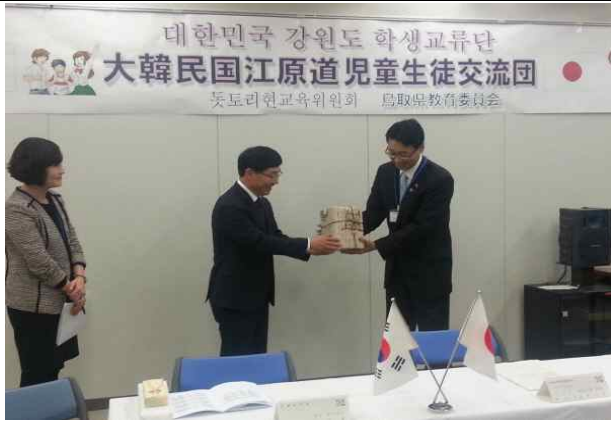
### ○ 주요 활동 내용

- 킨키고등학교 종합문화제 강원예술단 농악놀이 공연을 통한 문화교류 활성화
- 초,중,고 학교방문을 통한 한일 학생공동수업 및 방과후 체험활동 참여
- 공동주제(행복한 학교를 위한 학생의 역할), 중학생(학교 폭력 예방 방안), 고등학생(학교 생활규칙 정하기)의 상호 주제 토론회를 통한 학생 자기주도적 토론문화 체험
- 학생 홈스테이 활동을 통한 일문 문화이해 및 친선도모

### ○ 방문기간 일정

월일	시간	업무수행 내용	비고
11.13.(금)	09:30 11:00 16:00 17:00	인천공항 출발(OZ164) 일본 요나고공항 도착 돗토리현 교육장 예방 호텔 도착	
11.14.(토)	09:00 10:00 13:30 16:00	아오야 일본전통종이 공방 체험 예술단 리허설 킨키고등학교 종합문화제 견학 민화전시회 관람	
11.15(일)	09:00 10:30 13:30 16:00	와라베관 동요, 장난감박물관 모래조각 미술관 및 사구 견학 킨키고등학교 종합문화제견학 구로요시 시라카베도조군 이동	
11.15(일)	09:30 10:45 ~ 16:30 18:30	아오야마 고쇼 후루사토관 견학 학교방문 수업견학 및 토론회, .초-다이에이 소학교 교류회 .중-호쿠메이중학교 교류회 .고- 구라요시히가시고등학교 학생 홈스테이가정 대면식 돗토리현교육위원회주최 만찬	
11.16(월)	09:00 12:00 15:00 16:40	학교 등교후 미즈키 시게루로드견학 요나고공항 출발(OZ164) 인천 도착	

○ 방문기간내 활동 모습



돗토리현교육위원회 교육장 예방



다이에이소학교 방문 환영 공연



한일 학생 공동수업(체육) 참여



한일 학생 방과후수업(꽃꽂이) 참여



긴키고등학교종합문화제 농악공연



일본방송국 출연 촬영 모습



호쿠메이중학교 방문



한일 문화예술단 교류시간

### Ⅲ. 시사점 및 참여 소감

#### ○ 시사점

##### 1. 후쿠에이정립 다이에이소학교

1975년 4월 1일 개교한 19학급 전교생 394명의 전형적인 일본 시골의 소학교로서 42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한국에서 방영되는 [명탐정 코난]의 작가인 “아오야마 고쇼”의 출신학교로 학교 곳곳에 명탐정 코난과 아오야마 고쇼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일본의 만화왕국의 한 모습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잘 보여주고 있음.

학교 교실을 비롯한 모든 시설물을 1975년 개교시의 물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한국의 최신기자재와 교실 시설물들과 대비되는 모습이었으나, 옛것을 학생, 교직원 모두 소중히 사용하며, 교실과 복도를 학생들이 걸레로 닦으며 스스로 청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 2. 학생 공동수업

체육수업으로 처음 만나는 한일 학생들의 서먹한 분위기를 일순간에 서로 단결하여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나가도록 이끄는 일본 교사의 수업운영이 돋보였으며, 한일 학생이 모두 이해하기 쉬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수업참여도가 높았으며 다양한 움직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친선 도모를 이끌어내는 훌륭한 수업이었음

##### 3. 강원 학생예술단 공연

긴키고등학교 종합문화제는 일본 중부지역 여러 현의 고등학교가 참여하는 문화제로 일본 고등학생들의 합창, 연극, 관현악, 일본전통예술공연 이루어지는 36회의 역사를 자랑하는 종합문화제임

15개 일본 고등학생들의 참가팀중 10명으로 이루어진 강원도 영서고등학교 농악팀의 공연은 한국 전통 음악인 농악과 12발 상모돌리기, 접시돌리기, 자

반뒤집기의 소고춤 등으로 뛰어난 솜씨로 일본 관람객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이끌어낸 최고의 공연팀이었음. 특히 원주매지농악전승학교로 강원도 농악놀이 진수를 보여줌으로써 한일 문화교류의 성공적인 모습을 제시함

#### 4. 학생 홈스테이 활동

초,중,고 26명의 학생을 학년별, 남녀별로 구분하여 일본 가정에서 하룻밤을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일본 학생과의 교육 교류는 물론 일본 가정의 생활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음. 특히 일본 홈스테이 가정의 따뜻한 마음씨와 환영의 준비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소중한 문화체험과 실제적인 교육교류의 역할을 담당하였음.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음

#### 5. 2016 운영 시사점

2016년 일본 돗토리현 학생교류단의 강원도방문을 앞두고

- 강원도 지역축제인 단오(6월), 정선아리랑(10월)등 연계하여 일본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선정
- 교육지원청별 학생 동아리 문화공연 및 발표 시기 고려하여 운영
-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와 병행하여 국제문화교류 운영 요구
- 학생교류시 홈스테이와 방문학교를 고려하여 한 지역에서 운영(예시 강릉)
- 홈스테이 및 학생상호 교류방문을 고려하여 남녀 공학학교 선정 운영
- 일본어를 현재 학교에서 정규 또는 방과후시간에 학습하는 학교 선정
- 한일 학생 공동수업시 영어 또는 일본어 수업 가능한 교사 섭외
- 한일 문화교류 및 동하계올림픽 상호 홍보의 장이 되는 프로그램 마련
- 일본어 통역교사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의 학교 우선 선정
- 일본어 원어민교사가 근무하는 지역과 학교 우선 선정
- 고등학생 교류시 상호문화 소개 UCC 공동제작, 발표 및 유튜브 탑재
- 중학생 교류시 파워포인트 이용하여 상호 문화발표수업까지 운영
- 초등학생 교류시 상호문화 이해할 수 있는 예체능 프로그램 마련

## ○ 참여 소감

### 1. 인솔교사

00 초 교사 전 00

현재 초등학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의 입장에서 본 일본의 초등학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듯하면서도 많은 부분이 다르게 느껴졌다. 새롭고 좋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접하게 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기르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적 방향에 따라 낡은 학교 시설은 최신의 것으로 교체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름망에 거쳐 인증 받은 좋은 시스템이나 장치 또한 일선 학교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이 우리나라 교육에 큰 영향과 발전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다른 나라의 교육자들이 보았을 때 짧은 근대화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이 선진화되어 있음에 깜짝 놀랄 만한 일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일본을 돌아보며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눈에 보이는 측면만 강조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며 이러한 본질에 따라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교사의 능력, 그 중에서도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이에이 소학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에게 아이들이 포옹을 하며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우리나라처럼 최신의 시설은 아니지만 다이에이 소학교 아이들은 좋은 어른으로 자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모든 일본의 교사들이 우리가 견학한 소학교 교사들의 모습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교육의 도구적 측면인 시설과 장비의 최신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사가 가져야 할 아주 기본적인 덕목이며 교육의 본질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긴키고등학교 종합문화제를 보며 학교마다 전통을 가지고 이를 발전시키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다. 애향과 애교에 대한 의식적인 강조보다는 시대에 상관없이 같은 전통을 가지고 공유하는 선후배라면 자연스럽게 애향과 애교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한 첫인상은 깔끔하고 정갈한 음식만큼이나 기초 질서 의식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인성 측면을 보고서나 통계자료로 제출하라는 지시에 보여주기식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인데,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기본 질서 의식을 강조한다

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줄서기와 자기 주변 정리정돈 등 기초 질서가 바로 잡힌다면 학생 인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된다.

두서없이 교류단 인솔 교사로서 보고 느낀 점을 적어보았다. 아이들은 나라와 문화에 관계없이 사랑스럽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정갈하고 단박하지만 임팩트가 부족한 일본의 음식보다는 함께 떠난 영서고등학교 학생들의 농악 공연처럼 흥이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 뜻 깊은 일본 돗토리현 방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생교류단 방문을 추진한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 2. 참여 학생 소감문

( 0 0 여고 이 0 0 )

나는 평소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관심이 있었고, 나의 진로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었기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일본의 문화, 생활, 풍경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나에게서는 굉장한 도움이 되는 기회였다. 홈스테이 또한 현지인과 직접 소통하고 생활해봄으로써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 0 0 여고 이 0 0 )

솔직히 과거의 일 때문에 좋게 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던 옛날에 비해 이번 교류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 큰 오해를 가지고 있고, 안 좋은 점만 보지 말고 본받을 점도 있으니 더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일본의 이미지가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다.

( 0 0 여고 박 0 0 )

개인적으로 문화제는 무척이나 멋있었고, 잊고 싶지 않은 모습이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보고 싶은 공연 이었다. 합창, 마칭밴드, 댄스, 원주 영서고의 농악 공연 등 정말 매우 다양한 공연과 함께 여러 학교가 어우러져 공연 한 긴키고등학교 종합문화제는 한국과는 다른 문화제였다. 한국의 고등학교 축제와 다른 점에 놀랐고, 다양하고 화려한 공연에 두 번 놀랐다.

( 0 0 고 김 0 0 )

제가 농악을 배운지 어느덧 2년이 되었는데 문화교류로 돗토리 현에 가서



강원도대표 영서고 대표로써 제가 배우고 즐겨 했던 농악을 일본 돗토리현 문화교류단 친구들에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과 문화를 조금이나마 가르쳐 주게 되어 긍지가 생기고 전통문화를 계승시키는 일원으로써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0 0 고 김 0 0)

농악놀이 공연할 때 정말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고 긴장 되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 공연을 하였는데 솔직히 나는 너무 아쉬움이 컸다. 실수도 많이 했고 연습한 만큼 잘 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도 다들 박수를 많이 쳐 주셔서 감사했다. 공연이 끝나고 일본 학생들과 일본 스태프들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어디를 가서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정말 귀한 사진이다. 다 같이 사진을 찍을 때 정말 행복 했다. 아마 이런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것 같다.

(0 0 고 홍 0 0)

일본 아사히신문에 우리 공연 사진이 기사로 나와서 너무 기뻐다. 첫 번째 공연보다 두 번째 공연이 제일 흥이 났다. 왜냐하면 공연을 하는데 일본 학생들이 계속 박수를 쳐주면서 봐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버나개인놀이를 하면서 짜릿함을 느꼈으며, 떨어질 듯 말듯하면서 돌아가는 내 버나가 내 심장을 쿵쿵쿵쿵 뛰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힘은 들었지만 보람 있는 공연이었으며 흥이 나서 재밌게 했다. 나의 공연에서 최고중에 최고였다,

(0 0 중 박 0 0)

이번 교류를 통해 일본에 대해서 궁금했던 문화나 생활들을 알 수 있었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한 층 더 넓어졌다. 진로를 정할 때에도 도움을 줄 것 같아 이런 기회를 준 돗토리현과 강원도교육청분들께 감사함을 느꼈다. 잃은 것 없이 배워가고 얻어가는 것이 많은 것 같아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오게 된다면 꼭 신청 하고 싶다.

(0 0 중 김 0 0)

기회가 되면 나는 다시 돗토리현에 가고 싶다. 가서 또 다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싶다. 그리고 그들과 많은 추억을 쌓고 싶다. 나는 이 것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리고 돗토리현에서 우리 국제교류단을 도와주신 많은 분들과 선생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나는 이 추억을 잊지 못할 것 같다.



(0 0 중 김 0 0)

5일 간 앞으로 평생 하지 못할 여러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뜻 깊었다. 시험 기간과 겹쳐 부담도 되었지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시험 점수는 잃었지만 일본에서 얻어 가는 것들이 참 많았다. 2015년에서 가장 즐거웠던 경험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막힘없이 한일(교류단으로 일본에 다녀 온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만큼 정말 뜻 깊은 경험이었다.

(0 0 초 엄성현)

이번 학생교류단 일정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을 꼽으라면 나는 홈스테이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관광지를 다닌 것은 가족들과 나중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일본인의 집에 가서 그들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해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서 이번 기회로 이런 경험을 한 것이 두고두고 잊혀지질 않을 것 같다. 일본인들의 친절함과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야 할 것 같고 도시가 굉장히 깨끗했던 것이 인상에 남았다. 조만간 다시 일본을 가고 싶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 역사적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좋겠다.

(0 0 초 이 0 0)

학생교류단으로 일본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운 것 같다. 조선시대 통신사처럼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문화 등을 알려준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라도 우리나라를 알려줄 수 있어서 뿌듯하였고 교류단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0 0 초 허 0 0)

일본에서 학생들과 교류를 하니 말은 안 통하지만 마음은 잘 전달된 것 같아서 뿌듯했고 일본의 전통과 문화, 생활 방식을 많이 알아서 온 것 같다. 4박 5일 동안 일본에 교류하러 온 것이 무척 재미있고 즐거웠다. 다음에 일본을 한 번 더 가보고 싶다.

(0 0 초 김 0 0)

일본 친구를 또 다시 만나기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꼭 다시 일본 돗토리현에 가서 그런 추억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또 다시 한번 느낀다. 일본에 간 것은 절대 후회 안 되고 죽어도 이렇게 교류하러 간 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IV. 첨부자료

○ 현지 언론보도 자료 1

燐文

県立図書館(鳥取市)の大研修室に先月30日、県内の各高校から24人の生徒が集まった。第35回近畿高校総合文化祭鳥取大会(14、22E)の生徒実行委員だ。

「千代に続け 故郷!」。総合開会行事担当の6人が手話を交えながら、唱歌「ふるさと」の4番を歌い始めた。歌詞は自分たちで考えたが、完成まで1年以上かかったという。

「したりして迷走した」と振り返る。「ふるさと」のイメージを大切にしようとする道修正し、1、3番は作者にとつての古里の過去・現在・未来と解釈して、だれもが理想とする古里の未来を描いたという。県内の高校生ら200人以上で14日の開会行事で歌う。

実行委員が集まったのはこの日で8回目。4グループに分かれ、開幕に向けて準備を進めてきた。

おもてなし担当は開会行事でパンフレットなど一

実行委員は文化部長や生徒会役員が多いが、実行委員長は山口遼也さん(鳥取東2年)は水泳部員。芸術文化に興味があり、学校の勧めで実行委員になった。

文化部長はおとなしいという印象があったが、活発でアイデア豊富な面に驚いたという。「県外から来る高校生に日々の活動の刺激になるように、県内の運動部の生徒には文化部の技術のすばさを知ってもらえるようにしたい」

(波絵理子)おわり

韓国訪問団 農楽「見に来て」

「アンニョンハセヨ」。子どもたちがあいさつしながら県庁(鳥取市)に入ってきた。待ち構えていた県職員らは「ようこそ鳥取県へ」とハングルで書かれた横断幕を持ち、拍手を送った。13日午後



よん(一)そ近総文へ

4時(そのこと)だ。子どもたちは、県と交流がある韓国・江原道の児童、生徒26人。この日朝に米子空港に降り立ち、バスでやって来た。県教育長への表敬訪問のためという。その中に、嶺西高校の伝統芸能団に所属する生徒たちの姿があった。14日にある第35回近畿高校総合文



化祭鳥取大会の総合開会行事 歓迎される韓国・江原道の児童、生徒たち

に参加し、韓国の伝統舞踊「農楽」を披露する予定だ。メンバーの1人で嶺西高校3年のナム・ヒジュさん(18)は初来日。鳥取県は「海がきれい」というイメージを持っているという。キムさんらが披露する農楽は江原道の原州市に伝わる流派のもの。「見に来てください。目と耳で楽しんでもらえたら」

(相樹利弘)

2015.11.14

県へ原発防災対策費 米子・境港市 1割ずつ配分

鳥根原発(松江市)を設置する中国電力から防災対策費として県に寄付される6億円について、県と米子、境港の両市は13日、配分比率を県8割、両市1割ずつ

とすることを決めた。境港市と米子市の一部は鳥根原発から半径30キロ圏の緊急時防護措置準備区域(UPZ)にある。

平井伸治知事と野坂康夫・米子市長、中村勝治・境港市長がこの日、米子市の県西部総合事務所で協議。平井知事が県8割、両市各1割とする配分比率を示



除雪 冬の降雪(境港市)で、業者や県職員22人が願った。中部事務

鳥取

鳥取市行徳二丁目三三三 (トランス本店跡め先) ☎2713021代

**田中整形外科医院**

鳥取総局 鳥取市西町1-210 ☎0857(23)3611 fax (26)6334 mail:tottori@asahi.com

米子支局 ☎0859(34)7721 fax (34)7725

倉吉支局 倉吉市東蔵城町77 ☎0858(22)7166 fax (22)7167

購読のお申し込み 配達お問い合わせ 0120-33-0843 (7:00~21:00)

購読・配達のご用は 鳥取 (22)4351 鳥取西 (28)8747 鳥取東 (29)4700 米子東 (37)6567 米子西 (30)0300 米子中央 (23)6555 米子吉 (23)3931

広告のご用は 山陰アサヒ・アド 鳥取 0857(23)0911 米子 0852(26)8180

<2015.11.14.(土) 아사히신문 37면 기사>



<2015.11.15.(일) 아사히신문 37면 기사>